

포장학회지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목표 회원확보, 재정확대 위해 노력할 터



김 덕 응
(사)한국포장학회 회장

지난 달 14일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열린 (사)한국포장학회 정기총회에서 김덕웅 한양여자대학 식품영양학과 교수가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날 총회에서 지난 10여년 간 국내 대학 내 포장학과의 설립 추진 등 포장학의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활동해 온 (사)한국포장학회는 김덕웅 신임회장을 선봉으로 향후 학회 회원 확보를 통해 포장인의 단합을 꾀할 것을 다졌다. 본 지에서는 김덕웅 신임회장을 만나, 향후 학회운영 방침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았다.

- 편집자 주 -

“부족한 저를 회장으로 뽑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간 포장학회를 위하여 애써주신 신동소 전(前) 회장님과 그 이하 임원들의 노고와 은공에 감사드립니다.”

김덕웅 회장은 “대임(大任)을 위해 2년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소감을 전했다.

고려대학교 농화학과에서 식품 등을 전공하고 1967년 육군기술연구소 식품영양과에 연구원으로 입사 및 근무(개편 국방과학연구소 근무)하면서 식품포장에 관심을 갖게 된 김덕웅 회장.

그동안 그는 서울 보건대, 한양대, 세종대, 중앙대, 한국디자인포장센터(KIDP) 등에서 식품 포장 과목을 20여년간 강의하고 공업진흥청 포장부회 심의위원(KS, ISO), KIDP의 지도위원 및 자문위원, 식품과학

회 식품포장분과 위원회 회장, 식품 영양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식품포장학의 발전을 이끌어 왔다.

김덕용 회장은 국내 포장학이 불모지였던 1994년, 한국포장학회 발기 당시부터 부회장으로 활동면서 학회 발전에 앞장섰다.

그동안 (사)한국포장학회는 前 신동소 학회 회장과 이명훈 한국포장시스템연구소 소장 등이 주축이 되어 국내 대학에 포장학과를 설립하는데 주력, 경북과학대학 포장학과를 시작으로 신성대학, 용인송담대학에 학과를 개설케 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에 패키징학과가 4년제로 설립되었고 최근 청암대, 충남대학교에 포장학과가 개설되면서 학회로서는 좋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덕용 회장은 “포장학과가 늘어남에 따라 학회 회원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학회의 양적 질적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학내 포장학과 설립은 포장 지식기반조성이 한층 업그레이되는 것과 상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포장학과 확대와 이를 통한 회원확보를 통해 김 회장은 (사)한국포장학회의 저변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 (사)한국포장학회는 매년 학술대회를 2~3회를 개최하고 연 2회 포장학회지를 발간해 왔지만 학회지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

후보 요건에도 미치지 못해왔다.

김덕용 회장은 재임기간 동안 학술의 메카인 한국학술진흥재단에 학회지를 등재하기 위한 준비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그는 “많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논문투고를 통해 연 2회 발간에서 연 4회에 걸쳐 논문집 발간할 수 있도록 전력투구할 생각”이라면서 “학술진흥재단에 이름이 오를때 명실공히 국내외적으로 국제적 위상을 가지지 않겠느냐”고 피력했다.

김덕용 회장은 (사)한국포장학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회장 및 임원진들의 노력이 아닌 회원 개인의 학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재정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인화단결을 이루는 학회를 위해 학회 행사에 전 회원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국경없는 WTO 시대에 포장인이나 포장업계의 구심점이 없다는데 아쉬움을 느낀다는 김덕용 회장. 그는 앞으로 학회가 포장협회를 비롯하여 포장기술인협의회, 포장기술사회, 식품과 학회의 식품포장분과위원회와 긴밀히 접촉하여 회원 확보는 친목을 도모하는 공생관계로 발전해 나가길 바라고 있다.

신산업, 미래산업으로 포장산업이 발전하기 위해 학회의 활동이 강조되는 현재 김덕용 신임 회장의 활약을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

박초혜 기자